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2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2

上昇線

상모택

상승선



5-2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5 제2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18~21] 윤대녕, 남쪽으로 가라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오늘 역시 해설 방향이 명확합니다. 9평 대비 비연계 현대소설입니다. 아마 6월에 나룻배 이야기라는 연계 소설이 나왔으니까, 9월은 높은 가능성으로 비연계 현대소설이 뜨겠지요. 사실 낯선 소설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차분히 읽고 풀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시험에서 시간이 쫓기게 될 땐, 당혹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나 이런 것들 모두, 차분히 읽고 풀면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읽으면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아마 오늘 상상에서도 연계가 아닌 소설을 제게 선정해주신 것 같아, 그 뜻을 받들어 비연계 소설에 대한 해설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방법을 들이대더라도 일단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 파악이 되면 선지 판단의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달라지죠.(상황과 심리는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성격은 파악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설이 너무 낯서니까, 〈보기〉부터 한번 읽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낯설게 인식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도 한다. 「남쪽 계단을 보라」는 일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인물이 비현실적인 경험을 계기로,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는 양상을 그려 낸다. 이때 현실과는 다른 삶을 떠올리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억압된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일상에 순응하던 인물 → 비현실적 경험 계기 → 회의, 혼란
= 억압된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열망
에 대한 소설이겠네요.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저는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만, 기출과의 연관성이 보이지요. 비현실적 경험을 계기로 혼란을 겪는 작품들. 저는 딱 두 개 기억나더라고요. 아까 언급했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2025학년도 수능), 크리스마스 캐럴 5(2023학년도 9월). 파마늘 기억하시죠? 이것 역시도 비현실적 경험과 관련된 작품인데, 우리한테는 당혹스럽죠. 갑자기 배꼽찾고 있고, 파마늘 돋아서 아프다는데 실전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김에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기출 분석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다음, 경험치로 하나 아셨으면 좋은 것. 아마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그것. '현대인'이라는 개인이죠. 사실 '현대인'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우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납득이 잘 돼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고독, 불안, 혼란, 소외 등등. 이 소설도 아마 그런 요소들이 나오나 봅니다. 이건 경험치로 습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대인'이라는 부류의 성격을 알면 선지 판단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딴소리 잠깐 하면, 내면 중심적인 소설에 빠지면 사실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읽기는 좀 힘들지만, 이게 봤는데 그 인물이 나와 비슷한 모습이 있으면, 어? 이거 난데? 하는 순간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다 이상합니다. 사회적으로 티를 내지 않을 뿐, 우리는 우리만 아는 개인의 내밀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소설에 제시되다 보니, 공감의 여지가 커지게 되면 그 소설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저는 파우스트를 읽은 것이 제 인생을 거의 바꾼 것과도 다름이 없는데, 아무튼 추천합니다. 파우스트. 어려운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아무튼 실전으로 돌아가면, 〈보기〉를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억압된 자아를 회복하고 싶은 현대인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혼란을 겪기도 하겠네요. 이제 지문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러 갑시다.

혹시나 싶어 길바닥에서 서류 가방을 뒤져 보았으나 참고 자료들만 가득 차 있을 뿐, 밤을 꼬박 새워 만든 회의 보고서가 빠져 있었다. 빌어먹을! 매양 시간에 쫓겨 서두를 때는 오히려 이런 일이 없었건만 대체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집에까지 뛰어갔다 오면 가까스로 출근 시간까지는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듯했다. 그러한 와중에 슬쩍 남쪽 계단을 보니 하늘색 여자는 막 전철역 입구로 들어서고 있는 참이었다.

그런데 뒤미처 계단 모퉁이를 돌아가던 여자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러고는 무슨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이쪽을 아득히 돌아보는 게 아닌가. 나는 전봇대처럼 꼼짝 않고 서서 한동안 그녀와 무연히 마주 보고 있었다. 허나 그녀가 꼭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와 나는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아마도 전철역에서 누굴 기다리기 위해 서 있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야 나는 도리질을 하며 왔던 길을 급히 돌아가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셨다면... 너무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저도 ~~누군가의 연구실에서 4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남쪽 계단을 보니 하늘색 여자'가 전철역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일단 남쪽 계단을 보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상적인 일을 겪은 겁니다.

그로부터 내가 다시 그녀를 본 것은 불과 십 분 후다. 허겁지겁 집에 들렀다 나와 다시 단풍나무 길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까처럼 전방 오십 미터 지점에서 하늘빛 옷자락을 흔들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남쪽 계단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단풍나무 길에서 말이다. 이를테면 십 분 전에 돌아간 영사기의 필름을 거꾸로 다시 돌리고 있을 때와 같은 형국이었다. 그동안에 변한 것이라곤 손목시계의 분침이 열 개의 눈금을 지나친 것밖에 없었다. 또한 이번에는 서류 가방 안에 보고서가 제대로 들어 있다는 것 정도밖에는.

그녀는 남쪽 계단을 또 느릿한 걸음으로 올라가 잠시 멈춰서 이쪽을 스윽 돌아보더니 곧바로 전철역 안으로 사라졌다. 무엇에 쓴 듯 나는 부리나케 전철역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로 갔는지 그녀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잠시 후 꽤애 하고 승강장으로 전철이 들어왔으므로 나는 머뭇거리다 맨 뒤쪽 칸에 올라탔다.

집 들렀다가 나와서 또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엥? 가능한가? 분명히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다가 서 있던 여자였는데요. 당연히 이상하죠? 집에 들렀다가 다시 가는 길에 마주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시 전철역 안으로 사라집니다. 분명히 아까보다 10분이 지났는데, 또 본 거고, 심지어 같은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시 전철역으로 들어가 사라졌으니... 뭐지? 물론 여러분들은 〈보기〉를 읽고 들어갔다면 이게 비현실적인 경험인가! 라고 대응할 수도 있겠지요. 일단 죽 읽겠습니다.

회사까지 오는 동안 나는 완전히 멈춰져 있던 그 십 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기치 못했던 그 일로 하여 나는 돌연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잠을 못 잔 탓이려니 싶었지만, 그래서 허깨비를 본 모양이라고 치부해 버리려 했지만, 나는 피사의 사탑처럼 이미 중심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때부터 나는 '세계'의 십 분 앞이거나 혹은 십 분 뒤인 장소에 버려졌다는 묘한 느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이 사건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0분'이라는 간격에 겪은 희한한 일에 대해 갑자기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크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아무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경험을 했고 이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되는 '나'의 상황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갑작스레 자신을 찾아온 고등학교 동창과 각자 경험한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와 헤어진 뒤 '나'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혼자를 만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언제나 잘 읽어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외로움입니다. '나'의 심리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약혼자를 만납니다. 우린 그냥 실전에서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경험치가 있다면, 그래서 이를 확장한다면 이 외로움은 현대인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약혼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소설이 그렇죠. 정리합시다. 바쁜 일상을 살던 나라는 현대인이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됨!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제멋대로라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쭈글거리기 시작하고 원치 않는데도 다른 세계가 내게 개입하려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 죽음을 연장하기 위하여 돌연 먼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말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가령 지금 운행되고 있는 세계와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다는 거지. 누가 내 발목을 잡고 있거나 혹은 뒤에서 등을 마구 떠밀고 있다는 거야. 이를테면 타자의 속도라는 게 내게 개입해 있어."

"…… 정명 씨, 차종에 따라서는 최고 시속이 백 킬로도 있고 이백 킬로도 있고 삼백 킬로도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알맞은 속도라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아차 하는 순간에 도난 차량을 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마다 제 속도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벌써 궤도를 이탈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면 말이지. 세희,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세상은 정말 단면이거나 평면이 아닐지도 몰라. 전혀 다른 세계가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세계를 꿈꿔요? 말하자면 그런 욕망을 갖고 있냐구요."

"그렇다면 왜 내가 세희한테 전화를 했겠어."

"아녜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세계로부터의 유혹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의혹과 망설임이란 제동 장치만 갖고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꿈꾸지 않는 한 다른 세계라는 건 존재하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 그래, 실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새벽녘에 불현듯 노크 소리 같은 걸 듣고 홀로 깨어나게 되면 나도 그 소리에 화답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있었다. 어떻게든 한 번쯤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진흙밭에서 벌거벗은 채 다투고 있는 중이 아닌가. 무엇 때문인지, 무얼 위해서인지도 모른 채. 주기적으로 한 라운드가 끝나면 울리게 마련인 호각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제 얘기는 아직도 이쪽 세계에 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

"정명 씬 아직 이쪽에 속해 있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녀가 내 손을 슬그머니 잡더니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확인하고자 하는 눈빛이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한동안 더 가만히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나를 간절히 믿고자 하는 눈빛이었다.

와... N과 S의 대화 아닙니까. '나'와 약혼자의 대화입니다. 이때 잡혀야 하는 건, '나'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약혼자는 그를 현실 세계로 잡아두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약혼자도 인정합니다. '사람들마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세계로부터의 유혹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의혹과 망설임이란 제동 장치만 갖고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나'는 그런 세계를 꿈꿔왔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약혼자는 필사적으로 현실 세계에 '나'가 속해있길 바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대답입니다.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혼란이나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읽어줘야 하는 건 이것이네요. 현대인들은 모두 다른 세계로의 열망을 갖고 있다. 단 이것에 제동을 걸며 살아간다. 결국 현실에 억압된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열망이 드러나는 부분이 중략 이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수능이든 입시든 억압된 현실에서 살아가시죠. 특히 이 부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진흙밭에서 벌거벗은 채 다투고 있는 중이 아닌가. 무엇 때문인지, 무얼 위해서인지도 모른 채. 주기적으로 한 라운드가 끝나면 울리게 마련인 호각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공감되실 것 같아요. 곧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다른 것의 억압이 있겠지만, 일단 우린 1라운드라도 끝내봅시다. 파이팅!

18.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답이 깔끔하게 도출됩니다. 물론 소거를 바로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①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사건이 갖는 공통점을 도출하고 있다.~~
- 액자 구조도 아니고 상이한 사건이 갖는 공통점 없지요. 끝.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위선적인 면모 없습니다. 끝.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근거가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듭니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급한 대로 하나만 찾고 넘어갑시다. '나는 피사의 사탑처럼 이미 중심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거 잡고 바로 찍고 넘어갑시다.

④ ~~요약적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력을 독자에게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인물의 내력을 전달하는 부분 없고요.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인물 간 갈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서술자는 계속 '나'. 1인칭 소설입니다.

19.

사실확인입니다. 선명하기만 하다면, 사실 시간을 아낄 수 있지요. 답은 1번입니다.

① 세희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차이점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아녜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세계로부터의 유혹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의혹과 망설임이란 제동 장치만 갖고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꿈꾸지 않는 한 다른 세계라는 건 존재하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 그냥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세계의 유혹을 바란다고 인정하기는 해도, 사람들 간의 차이점이 해소될 수 없다고는 한 적 없습니다.

20.

왔다갔다할 것이 많아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차분히 따지면 답은 편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① ⓐ는 ⓓ를 고려하면, 상대의 존재가 자신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발언임을 알 수 있다.

- 세희가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면, 애초에 외로움을 해소하러 만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 발언도 아니지만요.

② ⓑ는 ⓒ에서 드러난 인물의 입장을 고려하면, 상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화제를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관심을 돌리기 위한 새로운 화제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③ ⓔ는 ⓓ의 상태가 유발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상대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세희는 나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사실확인만 잘하면 돼요.

④ ⓕ는 ⓔ의 물음에 대한 부정적 답변으로, 자신이 겪는 문제를 상대와 공유하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나요? 내가 그럼 왜 너한테 연락했겠어! 라는 의도 파악을 하면, 일단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게 맞습니다. 이때 부정적이라는 건,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나요? 아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자에게 얘기한 것은 이 상황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답은 4번입니다.

⑤ ⓖ는 ⓕ에 나타난 상대의 반응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상대의 선택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는 어떤 선택을 한 적이 없으니, 지지할 수도 없겠지요.

21.

이 문제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사실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이 현대소설 〈보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답이 선명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잘 낸 거라. 그래서 선지 판단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답선지만 보도록 할게요.

③ '나'가 '다른 세계가 내게 개입하려' 한다고 여기는 데에서, 인물이 뜻밖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 자아 회복에 대한 욕망을 품게 된 직접적 계기였음이 드러나는군.

- 기가 막히죠? 그럴듯하잖아요. 사실 이거 지문 읽고 보면, 뜻밖의 사건을 경험한 것 = 계기 오케이! 하고 문지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이 없게 된다고요. 그러기 참 쉽게 설계된 선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지에 '직접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엄밀하게 따져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 계기인가? 하고 의문을 품긴 해야 돼요. 그럼 확인을 해야 하죠. 분명히 '나'는 뜻밖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혼란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자아 회복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요. 선지 잘 읽어보세요. 선지는 문장입니다. 자아 회복에 대한 욕망을 품게 된 계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원래 자아 회복에 대한 욕망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거죠. 이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심지어 중요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제가 뭡니까. '현대인들은 사실 억압된 자아를 회복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나'도 현대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욕망을 원래 갖고 있었다고요. 단 희한한 사건을 계기로 혼란을 겪으며 그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 그래, 실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새벽녘에 불현듯 노크 소리 같은 걸 듣고 홀로 깨어나게 되면 나도 그 소리에 화답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있었다. 어떻게든 한 번쯤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진흙밭에서 벌거벗은 채 다투고 있는 중이 아닌가. 무엇 때문인지, 무얼 위해서인지도 모른 채. 주기적으로 한 라운드가 끝나면 울리게 마련인 호각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이 부분에서 원래 그런 욕망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낸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압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9평을 본 직후 일테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과거의 자신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마.
그때엔 그게 아마도 최선이고 진실이었을 거야.
그러니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마. 거꾸로 나이를 먹어 난쟁이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말이야.

9평을 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